

1. 밑줄 친 '유적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유적지는 한탄강 유역의 현무암 대지에 자리잡고 있다. 현무암 위에는 직색의 점토 퇴적층과 사질층의 퇴적물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퇴적물의 상부 점토층에서 석기가 다량 발견되었다. 1978년 겨울, 주한 미군 병사의 신고로 처음 유적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11 차례 걸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 등 아슐리안형 석기가 발견되어 세계 고고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 ① 고인돌과 선돌 등의 지석 기념물을 세웠다.
- ② 여성을 중심으로 한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 ③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 ④ 흙을 구워 만든 그릇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저장하였다.
- ⑤ 막집 등에 살면서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정답: ⑤

* 구석기 유적지(연천 전곡리)

1978년 한 주한 미군에 의해 알려진 연천 전곡리 유적지는 홍적세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구석기 유적이다.

하부의 연대가 약 60만년 전, 상부의 현무암이 약 30만년 전후로 알려졌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의 석기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찍개문화 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기존의 H.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 ① 고인돌, 선돌 등은 청동기 시대 유적지이다.
- ② 씨족을 기본 구성단위로 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 ③ 잉여농산물을 둘러싼 부족 간 전쟁은 청동기 시대 이후이다.
- ④ 그릇을 사용한 음식물 저장은 신석기 시대 이후이다.
- ⑤ 동굴, 막집, 이동 생활은 전형적인 구석기 시대상이다

2. 다음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학습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신라의 고분 문화
- ② 백제의 종교와 예술
- ③ 신라 중대의 조각
- ④ 발해의 건축과 예술
- ⑤ 신라 하대의 선종과 지방 문화

정답: ④

* 발해의 문화

정혜공주 묘 앞의 돌사자상 (길림성 돈화)

발해에도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이 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정효 공주 묘에서는 묘지와 벽화가 발굴되었다. 무덤에서 나온 이런 유물은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석조 이불 병좌상(동경성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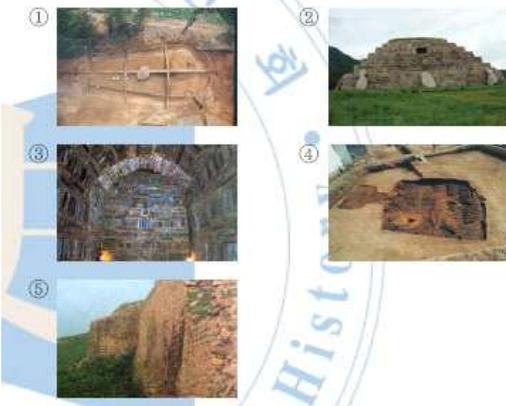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상도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발해의 석등(흑룡강성 영안)

발해의 조각은 궁궐 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발해의 벽돌과 기와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은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3. 다음은 어느 초기 국가에 관한 기록이다. 이 나라와 관련된 유적은? [2 점]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며, 모두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큰 나라의 경우에 만여 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 수천 가로, 총 10만여 호이다. …… 짙으로 지붕을 덮은 흙집에서 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덤과 같으며, 문은 윗부분에 있다. …… 귀신을 믿어서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 라고 한다. <삼국지>



정답: ①

* 초기 국가 마한

제시문은 마한을 설명하고 있다. 마한은 54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10만호였다. 그 중에서 큰 나라는 1만여호, 작은 나라는 수 천호였다.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신지, 견지, 읍차)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따로 있어 제정 분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① 마한의 무덤(전남 나주 용호리): 중앙에 널무덤이 있고 주변에는 해자 모양의 고랑이 있어 주구묘라고 불린다.

* 마한의 토실(충남 공주 장선리):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의 집 형태로, 최근에 발견되었다.

② 장군총(길림성 집안):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으로서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 층까지 쌓아올렸다. 옆의 큰 돌은 무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백제 공주 무령왕릉: 용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④ 여(呂)자형 집터(강원 횡성 둔내): 최근 강원도 동해시와 강릉시를 중심으로 철(凸)자 모양과 여(呂)자 모양의 집터가 계속 발굴되어 동예의 문화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⑤ 고구려 백암성 북벽으로 요동성, 안시성과 함께 고구려 요동지역의 방어성으로 길이는 2km, 높이는 6~8m에 이른다.

4. 다음 자료의 밑줄 친 '해동 보살님'에 해당하는 인물은?

[2 점]

오직 우리 해동 보살님은 성(性)과 상(相)을 융통하여 밝히고 고금을 세밀히 살피서 백가이쟁(百家異評)의 실마리를 화합시켰으니, 일대의 지극한 공문을 얻으셨습니다. …… 이분은 중국과 인도에 떨쳤고, 자비스런 교화는 저승과 이승을 감쌌으니, 그로 인한 덕을 찬양하려 해도 진실로 헤아리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지(의천)는 천행을 두터이 입어 불승(佛乘)*을 사모하여 선철(先哲)의 저술을 얻어 보았으나, 성사(聖師)보다 나은 이가 없었습니다.

〈대각국사문집〉

*불승 : 중생을 성불시키는 길로 이끄는 교법

- ① 원효 ② 의상 ③ 원광 ④ 자장 ⑤ 혜철

* 고대의 불교 승려

해동종(신라 불교의 여러 종파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은 부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의 시조는 원효이다(617~686).

원효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저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화쟁).

또한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정토종).

② 의상(625~702) 당나라 지엄(중국 화엄종 제2조) 문하에서 화엄종을 연구했고, 귀국 후 화엄종의 시조가 됨. 그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③ 원광(555~638) 세속5계와 '결사표'(고구려.백제 공격에 시달리는 신라가 수나라에 군대를 청하는 글)를 썼다.

④ 자장(590~658):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었으며,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2).

⑤ 혜철(785~861): 통일 신라 말기의 승려이다. 당에 유학을 다녀온 뒤 동리산 대안사에서 법회를 베풀어 선종 9산 중 하나인 동리산과의 개조가 되었다.

정답: ①

5. 다음 골품제에 대한 신라 청소년들의 가상 대화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2 점]

골품	황색	홍색	파색	자색
가)	[Blank]			
나)	[Blank]			
다)	[Blank]			
라)	[Blank]			
관등급	조소위	대소위	사대위	사대위
등급	17	15	14	10
	11	9	8	7
	6	5	4	3
	2	1		

- ① 준호 : “나는 5 두품이니까 대나마(大奈麻)까지만 진급하겠지.”
- ② 명희 : “그래도 6 두품은 5 두품보다 낮잖아? 이찬(伊漣)에 오를 수 있으니까.”
- ③ 슬비 : “6 두품인 내 친구 중에도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승려가 된 사람이 있어.”
- ④ 영석 : “내가 사모하는 봄이는 진골인데, 나는 4 두품이라서 우리는 혼인하기 힘들 것 같아.”
- ⑤ 현태 : “6 두품인 내 친구는 대아찬(大阿漣)이 될 수 없어서 아예 당나라로 공부하러 갔다니까.”

정답: ②

* 신라의 골품제도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예: 6두품 지식인)그러나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결혼 제한 가장 엄격)

진골은 모든 관등에 다 오를 수 있지만, 6 두품은 6등급(아찬)까지, 5두품은 10등급(대나마)까지, 4두품은 12등급(대사)까지의 한계가 있다.

② 6두품은 6등급인 아찬까지 오를 수 있다. 이찬은 진골만이 오를 수 있다.

* **중위제**: 중대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6두품 중심의 관료제의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골품제적인 제한은 관등 향상을 노리는 6두품 이하 관료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골 중심의 골품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를 활성화시키는 타협안으로서 중위제가 성립되어 아찬에 4등급, 대나마에 9등급, 나마에 7등급의 중위를 설치하여 관등상의 상한선에 오른 비진골 관료층에게 특진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한편 제8관등인 사찬(沙漣)에도 최소한 3등급의 중위를 설치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에 지방민에 대해 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6. 다음 글의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고려 시대에는 조세, 공물, 요역을 징수하였다. ㉠조세는 토지에서 생산물의 일부를 수취하였고, ㉡공물은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거두었으며, ㉢요역은 호별로 노동력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국가의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 동원의 실제적 행정 사무는 ㉣호장 이하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가 재정의 근간인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농민은 어려운 생활을 면하기 어려웠다.

- ① ㉠ -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 ② ㉡ -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부과되었다.
- ③ ㉢ - 정남(丁男)을 대상으로 하였다.
- ④ ㉣ - 토착 세력가들로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⑤ ㉤ - 의창계를 실시하였다.

정답: ②

* 고려의 수취제도와. 사회제도(민생안정)

•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다. 공물의 종류로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과중한 조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의창(춘대추납)과 상평창(물가조절)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다. 호족 출신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7. 다음 유물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적절한 것은? [1 점]



- ① 백제와 왜의 우호 관계
- ②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
- ③ 백제와 신라의 우호 관계
- ④ 신라의 함경도 지방 진출
- ⑤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

정답: ⑤

* 호우명 그릇과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杵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① 백제에서도 금속 기술이 발달하였다. 4세기 후반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칠지도는 백제 제철 기술의 우수함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② 금관 가야 병합(532)과 관련된 특별한 자료는 없고 진흥왕의 순수비 중 창녕비(561) 건립이 진흥왕이 창녕에 순수한 해가 대가야가 멸망한 때로부터 불과 1년 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가야 지역에 대한 정치적 선무(宣撫)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제 동맹, 결혼 동맹 외에는 유물로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

④ 진흥왕 순수비 중 황초령(568), 마운령비(568)가 좋은 예

8. 다음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점]

설씨녀는 (신라의) 울리 민가의 여자이다. ……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정곡(正谷)을 밟아하는 당면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듣고 병들었기 때문에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으며, 또 여자의 몸이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없었으므로, 다만 홀로 근심에 싸여 있었다. …… 사랑부의 소년 가실이 설씨에게 자청하여 말했다. “나는 비록 한 나약한 사람이지만 일찍이 의지와 기개로써 자부하고 있으니, 원컨대 불초한 몸으로써 그대 아버님의 병역을 대신해 주기 바라오.” …… 아버지가 “어린 딸을 주어 그대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였다. ……

그런데 마침 국가에서 사교가 있어 다른 사람을 보내어 교대시키지 않았으므로 가실은 6년 동안이나 머무르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가 말하기를 “정해진 3년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이에게 시집 가거라.” 하였다.

<삼국사기>

- < 보 기 >
- ㉠. 부유한 사람은 돈을 내는 것으로 군역의 의무를 대신하였다.
 - ㉡. 한 차례의 군역에 소집되었을 때, 복무 기간은 3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 ㉢. 대신해서 군대에 갈 사람이 있으면 자신은 군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 ㉣. 40세 이상 백성은 원칙적으로 군역에서 면제되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③

* 고대 평민들의 사회상(군역)

가실과 설씨녀 설화

'가실(嘉實)과 설씨녀'의 설화라고도 한다. 제26대 진평왕 때 울리(栗里)에 사는 설녀(薛女)의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방으로 군역(軍役)을 치르러 나간 설녀의 약혼자 가실은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다른 곳으로 시집갈 것을 강요하나, 설녀는 끝내 가실을 기다린다.

6년 만에 드디어 가실이 돌아왔으나, 고생으로 초췌해진 그의 물골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가실은 신표(信標)로 받은 거울 조각을 내보이고 설녀와 가연을 맺는다. 이는 신품(信物) 교환의 옛 풍습을 말해 주는 내용으로서, 고대 민초들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전해진다.

- ㉠ 돈을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이 군역을 대신해야 한다.
- ㉡ 고대의 군역 기간은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 정확한 추정은 힘들다, 보기의 자료를 보면 “... 정해진 3년 기한이 넘었으니 ...”라는 것을 유추해볼 때 3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 ㉢ 보기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 ㉣ 군역의 의무를 지는 정남은 16세에서 60세까지이다.

9.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었던 고려 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점]

합좌(合坐)의 예식(禮式)은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서고, 뒤에 온 사람이 그 지위에 따라 한 줄로 서서 읊(誦)한 다음 함께 자리 앞에 이르러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서로 인사 말을 주고받는다. …… 녹사(錄事)가 논의할 일을 앞에 가서 알리면, 각기 자신의 의사대로 그 가부(可否)를 말한다. 녹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되도록 하며, 그렇게 한 뒤에 시행한다.

<역용패설>

- ①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②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 ③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았다.
- ④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였다.
- ⑤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정답: ④

* 도병마사(도평의사사)

중서문하성의 재신(2품 이상)과 중추원의 추신(2품 이상)으로 구성된 국가 의결 기관으로 국방 문제와 같은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재부와 추부의 대신들이 함께 모여 만장일치제로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를 의합(議合)이라고 불렀고, 삼국시대 이래 관행인 합좌제도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러나 무신정변(1170) 이후에는 국방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都堂: 도당).

1279년(충렬왕 5)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병마사도 도평의사사로 확대.개편되어 모든 국사를 합의·시행하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상설되어 조선 개국 초까지 존속하다가 1400년(정종 2) 의정부로 개편되었다. 즉 도평의사사 시기에는 단순한 회의 기관이 아니라 행정기능도 겸하였는데 6색 장이나 6방 녹사가 직접 행정 업무를 맡고 이를 통괄하는 경력사를 설치하였다.

- ① 중추원 중 추밀(2품 이상)이 군사기밀, 승선(3품 이하)이 왕명출납 담당
- ② 재추회의는 도병마사 외에 식목도감을 통해 입법 기능을 행사함
- ③ 고려의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 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10. 다음의 자료가 알려 주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지금의 승려들을 보면,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대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만 사소하고 용렬하며 세속의 일에 팔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山林)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정(禪定)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 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온 힘을 다해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권수정혜결사문〉

- ① 무신 집권 시기에 불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원효의 불교 대중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③ 월 간섭기를 거치면서 불교계의 부패와 타락이 심하였다.
- ④ 중국과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들이 많았다.
- ⑤ 선종 불교가 대두하여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다.

정답: ①

* 고려 후기 무신 집권 시기(12C 말~13C 초)의 불교계 동향

출전인 권수정혜결사문은 지눌(보조국사, 1158~1210) 저서이다. 그는 고려 무신 집권기(1170~1270) 초기에 활동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강이 무너져 하극상 풍조와 농민들에 대한 수탈 심화와 불교의 타락, 그리고 농민, 하층민, 천민, 문신세력 등의 반란이 있는 등 사회가 어지러웠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 ① 불교 통합 운동은 지눌 이전 의천(1055~1101) 시대에도 있었다.
- ② 신라 시대 활동(617~686)
- ③ 원의 간섭기(1270~1351)는 무신정권(1170~1270) 이후임
- ④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자장, 원측, 의상, 혜초 등)
- ⑤ 통일 신라 후기, 나말여초(9 ~ 10세기 초)

11. 다음 기록이 나타났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점]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翡色)이라고 하는데, 근년에는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솔그릇의 형상은 오이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는 것이 연꽃에 얽드린 오리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잔도 만들 수 있었으나, 모두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여 그리지 않고, 솔그릇만은 다른 그릇보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드러내었다.

〈고려도경〉

- ① 대형 철불과 거대한 석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 ② 이자겸이 두 딸을 왕비로 들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 ③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과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지었다.
-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봉기하였다.
- ⑤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시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정답: ②

* '고려도경'과 고려 중기 시대상(12C 초)

고려도경: 송나라 휘종이 1123년 고려에 국신사(國信使)를 보낼 때 수행한 서공(徐兢)이 송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림을 곁들여서 기록하여 1124년 완성한 책이다.

당시 시대는 12세기 초 인종 때이다.

전 40권으로, 고려 시대 당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 예술, 기술, 복식, 풍속 등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32권에 고려 청자에 대한 찬사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고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 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10세기).
- ② 예종(1105~1122), 인종(1122~1146) 때 이자겸의 딸을 왕비로 들임.(12세기 초)
- ③ 국학과 문묘는 우리 역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통일신라기 714년(성덕왕 16년)에 김수충이 당으로부터 공자와 10철 및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한데서 비롯된다.
- ④ 고려 무신정권의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명종 때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가(1176), 운문, 초전 에서는 김사미, 효심이 봉기하였다(1193).
- ⑤ * 전시과(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의 발전

시정전시과: 경종, 976, 관품+인품 반영)
 개정전시과: 목종, 998, 관품(전직+현직)
 경정전시과: 문종, 1076, 현직만, 무반↑

12. 다음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가)는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
- ㄴ. (가)의 기둥은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 양식이다.
- ㄷ. (가)와 (나)의 공포 양식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
- ㄹ. (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맞배지붕 형태의 건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 후기 건축 양식(주심포 양식)

13세기 이후에 지은 배흘림 주심포식 건물들은 일부 남아 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들은 균형 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외관과 잘 다듬은 각 부재의 배치가 만들어내는 경건한 내부 공간으로 유명하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 배흘림 양식 또는 엔타시스 양식이라 하여 안정감을 준다

㉢ 주심포 양식은 원 이전에 해당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은 양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포를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설치한 것을 다포식이라 하는데 고려 후기에 나타나서 조선시대에 널리 유행했다. 고려 후기 대표적 다포식 건물은 '성불사 응진전'이다.

㉣ 맞배 지붕 형식은 가장 간결한 구성으로 인자형·八字형이며, 박공(博拱)을 달아 장식한다. 현재 수덕사 대웅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개심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에서 볼 수 있다.

13. 그림은 고려 시대의 신분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각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



- ① (가)는 과거보다 쉬운 천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 ② 향리나 하급 장교 등은 (나)에 속하며, 전시과의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③ (다)에 속한 백정에게는 법제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 ④ 향, 부곡, 소의 주민은 국역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다)에 속한다.
- ⑤ (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다)보다 무거운 국역의 의무를 졌다.

정답: ④

* 고려의 신분제도

(가) **귀족**: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나) **중류**: 고려의 중류층으로는 중앙 관청의 서리,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있었다. 이들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 간 계층이었다.

(다) **양민**: 양민은 일반 농민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로운 신분인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들로서 이들은 백정이라고도 한다.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조세, 공납, 역이 부과되었다.

(라) **천민**: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① 천거는 학식과 덕행이 뛰어났으면서도 가문 등이 미약하여 임관치 못하는 인물을 천거에 의해 특별히 등용하는 제도였다.

② 6품 이하의 관리 하급 장교, 향리와 관련하여 한인전, 군인전, 외역전이 지급되었다.

③ 법제적으로는 양민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④ 향, 소, 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이지만 일반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역 부담은 일반 양민과 동일하다(신량역천).

⑤ 노비는 자유가 없지만 또한 국역도 없었다. 양민 이상만 국역이 있다.

14. 다음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처음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염려하여 용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하여 폭행을 막게 하였다. 그 까닭으로 야별초라 불렀다. 도적이 여러 도에서 일어났으므로 별초를 나누어 파견하여 잡게 하였다. 그 군대의 수가 많아져 드디어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었다. 또, 몽골에 갔다가 도망해 온 고려인으로 한 부대를 만들어 신의군이라 불렀다.

— < 보 기 —

- ㄱ. 승군(僧軍)과 함께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
- ㄴ.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반정부, 반몽골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였다.
- ㄷ. 쌍성총관부를 공략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ㄹ. 진도를 근거지로 하여 전라도 도서 지방, 경상도 남해안 일대를 세력권으로 삼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삼별초: 최씨 정권의 사병, 대몽항쟁

1219년(고종 6)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방도(防盜)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神義軍)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抗蒙戰)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으며,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고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였다.

㉠ 용인 처인성에서 승려출신 김윤후가 부곡민들과 합세하여 살리타를 사살하여 몽골군을 퇴각시켰다.(1232)

㉡ 공민왕 5년(1356)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했는데, 이 지방의 수복은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이자춘이 개경의 벼슬아치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삼별초는 초기에는 전라도 연해 지역의 세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제 2단계로는 후방의 배후지가 되는 제주도의 확보, 그리고 3단계는 경상도 남부 연해지역 일대에 대한 지배권의 확보였다. 그리하여 진도를 중심으로 전라, 경상 연해 지역에 대한 일정한 세력 확보에 삼별초는 성공하지만 압도적인 여몽연합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었다.

15. 다음 지도에 표시된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① 무신들의 권력다툼이 가져온 정국의 혼란 속에 지배층의 수탈이 더욱 강화되었다.
- ② 폭압적인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다시 국왕과 문신에게로 되돌리려고 하였다.
- ③ 고구려 부흥이나 백제 부흥을 표방한 삼국 부흥 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식이 등장하였다.
- ④ 후삼국 통일 이후 나라를 통합하고 안정적인 부세 수취를 위해 존재하던 본관제와 같은 지배 체제가 붕괴되었다.
- ⑤ 농민이나 노비를 비롯한 하층민에게 제도과 법이라는 굴레는 언제든 벗어던질 수 있다는 사회 의식이 성장하였다.

정답: ②

* 무신정권기의 반란(천민, 하층민, 노비, 문신 세력, 부흥 운동 등)

무신 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에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12세기에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조위총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의 봉기, 운문 초전의 김사미·효심의 봉기).

이후 신라부흥 운동(김사미, 효심의 난)과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격(신라:김사미 효심의 난, 고구려: 최광의 난, 백제:이연년 형제의 난)에서부터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는 타협적인 성격(전주 관노의 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봉기가 일어났다.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② 동북병마사 김보당의 난(명종3년, 1173)이 의중 복위를 피하는 문신 세력의 난이었다. 보기의 자료에는 없다.

④ 고려 시대 본관제는 양인층을 대상으로 성립한 제도로서 거주지는 물론 신분 계층, 역(役) 등을 깎박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유민의 발생과 민중 봉기는 본관제의 깎박 관계를 이완시켰다.

16. 다음과 같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뜻이 같은 2, 3명의 대신과 함께 전대(前代)의 법을 강구하고 지금의 현실에 알맞은 것을 참작하여, 국내의 토지를 측량하여 파악한 다음, 토지를 결수로 계산하여 그 중의 얼마를 상공전, 국용전, 군자전, 과전으로 분배하고, 한량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 혹은 (관료의) 과부로서 수절하는 자, 향역(鄕驛)과 진도(津渡)의 관리, 또는 서민과 공장(工匠)으로서 공역을 맡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토지를 분배해 주었다.

〈조선경국전〉

- ① 수신전, 흠양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 ②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③ 전지 외에 시지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 ④ 갑사 등의 군인과 한량에게 군인전을 지급하였다.
- ⑤ 수조율은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한정하여 경작자를 보호하였다.

정답: ④

* 과전법 실시(1391)

관료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국가에서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즉 권문세족에 의해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이다

문무,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세습이 되지 않으며 경기 일대의 토지에 한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신전, 흠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어 토지 부족의 문제점을 가져와 세조 때 직전법(현직에게만 지급)으로 개정되었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①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흠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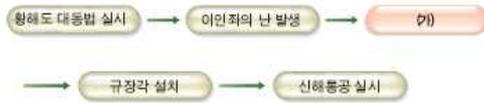
②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있었다.

③ 고려의 전시과(전지+시지)와 달리 과전법에서는 시지(임야)는 지급되지 않았다

④ 조선 시대에 군인전은 없었다. 갑사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일종의 직업 군인으로서, 근무 기간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5위제가 세조 3년(1457)에 형성되었는데 갑사는 이 5위의 중심 병력이었다.

고려 말기 과전법 시행으로 경기 이외 지방의 사족 지주들은 자기 토지의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군전(軍田)이라는 이름으로 10결 혹은 5결의 땅을 되돌려 받았다. 이들은 한량(閑良)으로 불리면서 중소지주층을 형성하고, 원칙적으로 마병으로 복무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농민보다는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문에 종사하고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았으며, 스스로 사족으로 자처했다. 조선 왕조를 이끌어간 중심 세력은 바로 이들 사족이었다

17. 전후 관계로 보아 (가)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 점]



- ① 수원 화성을 완성하였다.
- ② 군포를 2 필에서 1 필로 줄였다.
- ③ 경상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④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 냈다.

정답: ②

* 영조 때의 업적

(가)는 이인좌의 난이 1728년 영조 시대 (1724~1776)에 일어나고, 규장각이 정조 (1776: 정조 즉위 원년)때에 설치되었으므로 최소한 영조 때의 일이어야 함

① 정조 때의 문화적인 역량을 집약시켜 새롭게 만든 화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겸한 성곽 시설로, 주위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평상시의 생활과 경제적 터전까지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1794~1796).

② 영조 때에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③ 대동법 시행 과정: 경기도(1608), 강원도(1624), 충청도(1651), 전라도(1658), 경상도(1678), 황해도(1708)

④ **황사영 백서 사건:** 천주교 신유박해 (1801: 순조 1년) 때 황사영이 중국 북경의 프랑스 주교에게 밀서를 보내 조선 공격을 간청한 사건

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 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1696).

13. (가) ~ (다)의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① (가) - 목탑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다.
- ② (가) - 백제의 미륵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 ③ (나) -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 ④ (나) -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 ⑤ (다) - 삼국 시대 때 신라에서 벽돌을 쌓아 건축하였다.

정답: ⑤

* 고대의 석탑

- (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나)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 (다) 분황사 모전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를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쾌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신라의 탑으로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탑이 유명하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석가탑은 통일 이후 축조해 온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탑의 날씬한 상승감 및 넓이와 높이의 아름다운 비례는 부처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이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② 미륵 신앙이란 이상적인 복지 사회를 제시하는 미래불로서의 미륵을 믿는 신앙인데, 한국의 초기 불교 수용에서부터 전래된 미륵신앙은 특히 신라와 백제에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응용되어 백제의 무왕은 익산 미륵사의 창건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⑤ 모전탑이란 전(塹)(벽돌)을 흉내(모:模)낸 것이지 진짜 벽돌을 쌓은 것은 아니다

19. 다음과 같은 생각이 널리 퍼졌던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점]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도리는 아들이긴 딸이긴 차이가 없지만, 딸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봉양하는 도리가 없고, 부모가 죽은 뒤에도 제사를 지내는 예가 없으니, 어찌 토지와 노비를 아들과 동등하게 나누어 주겠는가?

- ① 적장자가 주로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② 친딸은 양자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아졌다.
- ③ 촌락 내에 같은 성씨의 집단 거주가 확대되었다.
- ④ 혼인 관행이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로 바뀌었다.
- ⑤ 족보에서 자녀는 남, 여(사위)순으로 기재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후기(17세기 이후) 가족.상속제도

• 아들과 딸과의 재산 상속을 차등을 두는 것을 볼 때 조선 후기의 적장자 위주의 가부장적(부계 위주) 가족.상속 제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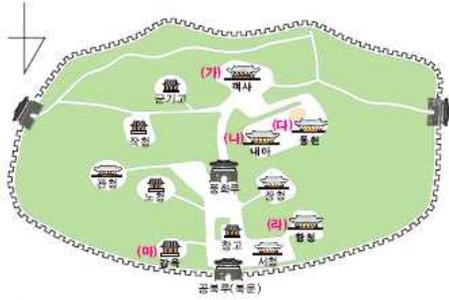
•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여 자녀를 태어난 순서가 아닌 남, 여(사위)순으로 기록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종종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④ 기존의 남귀여가혼(처가살이)에서 친영(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올리고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혼인 형태)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신부 입장에서는 시댁살이가 된다)

20. 다음은 조선 시대 읍성의 모습이다. (가)~(마)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



- ① (가) - 지방을 여행했던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 ② (나) - 수령이 생활하던 살림집이다.
- ③ (다) - 수령이 정무를 집행했던 관아 건물이다.
- ④ (라) - 향리인 육방이 행정 업무를 보던 곳이다.
- ⑤ (마) -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 조선 시대 읍성(邑城) 구조

• 읍성이란 지방 주요 지역에 관부(官府)와 민거(民居)를 둘러 쌓은 성으로서 지방 군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 행정 기능을 담당하던 성이다. 종묘와 왕궁이 있는 도성(都城)과는 구별된다.

객사(客舍):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둔 관사(館舍).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관찰사가 일을 보는 동헌보다 격이 높았으며, 관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교지(教旨)를 전하기도 하였다.

내아(內衙): 수령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관아 내에서 가장 엄밀한 곳이다.

동헌(東軒): 조선 시대 지방관들이 정무를 집행하던 관아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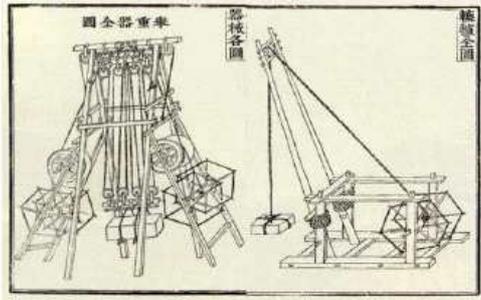
향청: 조선 시대 지방 행정 관서 단위로 둔 지방 자치 기관. 유향소가 바뀐 이름. 사족(양반)들이 운영하였다.

감옥: 수령들은 사법권(재판권 및 수사 형 옥 업무)을 행사하였다

④ **향청(유향소):**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질청(秩廳): 육방 아전들의 집무실

21. 다음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의궤는? [1 점]



- ① 경모궁의궤 ② 산릉도감의궤 ③ 가례도감의궤
④ 공신도감의궤 ⑤ 화성성역의궤

정답: ⑤

* 조선 후기 화성(수원성) 건축과 <화성성역의궤>

의궤는 국가의 특별한 행사(혼인, 장례, 잔치, 행차, 토목공사 등)의 과정과 비용,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넣은 상세한 보고서이다.

화성성역의궤: 조선 시대 화성 성곽 축조(1794~1796)에 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수록한 책이다. 특히 재정 부분에서 소요물품의 종류와 가격, 구입 경로들을 상세히 밝히고, 강제 노역이 아닌 일꾼들에게 일상의 품값이 지불되었으며, 공사에는 서양과학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보기 자료의 거중기). 의궤로서는 드물게 활자로 인쇄되어 널리 반포되었다(정리자본).

거중기: 정약용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① **경모궁의궤:** 조선 정조 때에, 경모궁에서 제사 지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책

② **산릉도감의궤:**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자, 비빈(妃嬪) 등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고 능이 조성되기까지의 절차와 의식의 전말을 기록한 책.

③ **가례도감의궤:**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혼례의식에 대한 절차를 적은 책.

④ **공신도감의궤:**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혼례의식에 대한 절차를 적은 책.

22.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정하여 탐구하고자 할 때, 참고 서적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태범 : 조선 전기 압록강 이북의 지리와 북방 정책 연구
- 경연 : 고려 시대 이민족의 침입과 이에 대한 전술 탐구
- 덕수 : 조선 전기의 농업 기술과 생산성 조사
- 문영 : 강릉의 연혁과 전래 풍속, 인물 조사
- 현정 : 조선 세종 때의 한의학과 약재 조사

- ① 경연 - 병장도설 ② 현정 - 동의보감
- ③ 태범 - 대동여지도 ④ 덕수 - 향약집성방
- ⑤ 문영 - 신증동국여지승람

정답: ⑤

조선 초기 민족 문화의 발달

• 15세기 문화를 주도한 관학과 계열의 관료와 학자는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이라도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나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족적이면서 자주적인 성격의 민족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① 경연에게는 김종서의 주도하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이 필요. <병장도설>은 조선 초기 문종 때 발간된 군사 훈련 지침서

② 현정에게는 세종 때에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편찬한 <향약집성방>,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가 필요.

동의보감: 17세기 초에 허준이 저술하여 의학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뛰어난 의학서로 인정되었다.

③ 태범이는 지도나 지리서가 필요한데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

대동여지도: 1861년 김정호가 완성한 우리나라 전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해지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으며,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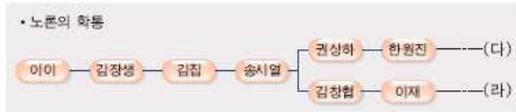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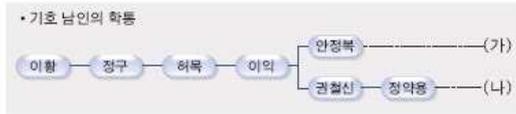
④ 덕수는 조선 초기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간행, 보급된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의 농서가 필요하다

향약집성방: 15세기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한 책

⑤ 문영은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한 세종 때의 신찬팔도지리지, 성종 때의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地理誌)가 필요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때 증보한 것이다. 여기에는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있다.

23. 표는 기호 남인과 노론의 학통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라)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ㄱ. (가)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배격하였다.
 ㄴ. (나)는 순조 때에 천주교 박해로 탄압을 받았다.
 ㄷ. (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ㄹ. (라)는 호론 계열의 대표적 인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기호 남인(중농적 실학자)의 천주교(서학)에 대한 입장과 노론 내의 호락논쟁

- (가) 남인 중 공서파(서학을 공격)
 (나) 남인 중 서학 신봉자
 (다) 낙론(인물성동론, 서울 지역 노론)
 (라) 호론(인물성이론, 충청 지역 노론)

기호 남인: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부근의 경기 지방(기호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이었다. 성호 이익 제자로서 성호 학파라고 불리운다.

호락 논쟁: 조선 후기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대한 동질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동물 혹은 식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근본적으로 서로의 본성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으로 나뉘었다.

전자(인물성동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는 김창협, 이간, 이재이며, 후자(인물성이론)의 대표 주자는 한원진이다.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낙학(洛學) 또는 낙론(洛論)이라 하였고,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충청도지방에 살고 있어 호학(湖學) 또는 호론(湖論)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논쟁을 호락논쟁이라고 한다.

㉠ 안정복은 철저한 경세(經世)적 성리학자로서 양명학 및 서학을 이단시하였다.

㉡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1801: 신유박해).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정약용 등)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24. 다음 글을 읽고 당시의 상황을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바야흐로 금나라가 천성기를 맞아 우리 나라를 신하로 삼으려 하였다. 여러 사람이 어지럽게 논의하였는데, 이 공(公)이 홀로 따지며 아뢰기를 "임금이 환란을 당하면 신하는 욕을 보게 되는 것이니, 신하는 감히 죽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진은 본래 우리 나라 사람의 자손으로서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 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도 모두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의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때에 권신이 임금의 명령을 깨끗대로 경하여 신하를 칭하면서 서약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진정 인종의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이 매우 부끄러워하고 슬퍼하였다. <윤언이 묘지명>

<보기>

ㄱ. 이 묘지명의 주인공은 자주파, 북진파의 인물이다.
 ㄴ. 여진족은 윤관의 여진 정벌 이후부터 고려에 조공을 바쳐 왔다.
 ㄷ. 이 시기에 이자겸과 김부식 등의 문벌 귀족들은 금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였다.
 ㄹ. 이자겸이 사대를 주장할 때 묘청 등의 서경파는 서경 천도와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려 중기(12C 초) 금나라(여진족)의 강성에 따른 사대파와 북진파의 갈등

제시된 자료의 주장은 북진파의 주장임

• 12세기에 거란이 쇠퇴하자, 여진족이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강성하기 시작하였다. 여진족은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하여 말과 화살 등을 바쳤고, 고려는 식량과 농기구 등을 주어 그들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완연부가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그 세력이 천리장성부근까지 남하하여 고려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는 숙종 때 윤관의 지휘 아래 여진 정벌군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자, 별무반이라는 특별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예종 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을 단행하여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면 지역에 9성을 설치하였다(1107). 그러나 여진족이 잃은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는데 다 방비하기도 어려워 9성을 돌려주었다(1109).

이후 여진족은 금을 세우고(1115), 거란을 공격하였다. 거란은 금과 싸우기 위해 고려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고려는 이를 거절하고, 금과의 관계 개선을 피하여 거란이 점령했던 압록강 유역의 보주(의주)를 획득하였다.

금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만주와 몽골, 중국의 북부를 지배하게 되자, 고려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 왔다(사대 관계 요구). 이에 당시 집권 세력이던 이자겸, 김부식 등의 문벌귀족들은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신(윤관의 아들 윤언이 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과 사대의 예를 맺어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북진 정책을 한동안 중단되었다(1125).

㉠ 금에 대한 사대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봐서 북진파(자주파)이다.

㉡ 묘청, 정지상 등 서경파는 이자겸의 난(1126) 이후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개경 문벌귀족 간의 대립에서 서경친도를 내세우다 난을 일으켰다(묘청의 난: 1135).

25. 다음 두 자료와 관계가 깊은 조선 후기 상인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점]



(나)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난민의 무리가 불을 지르고 집을 들어부수며 파괴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이니, 그 날의 도망을 다 배어 죽인다 하여도 지나칠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민란의 근본 원인은) 대개 강상(江上)에 곡식을 모아 둔 것이 올해와 같이 많은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쌀값이 조금 헐하여져서 백성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의 상인들은 쌓아 둔 곡식 값이 뛰어들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가와 객주들을 지휘하여 곡식을 감추게 하고, 저잣거리의 백성들과 호응하여 값을 올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순조실록, 순조 33년 3월>

- <보기> —
- ㄱ.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고, 주로 쌀, 소금 등을 독점 판매하였다.
 - ㄴ. 한강 유역의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선박은 배다리 설치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 ㄷ.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상권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국과의 국제 무역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 ㄹ. 선혜청, 상평청, 진흥청, 호조 등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공물을 사서 납부하며, 상업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조선 후기 사상(경강상인)

제시 자료 (가)는 경강상인의 활동 무대 지도이고, (나)는 경강상인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쌀값 폭등의 폐해와 관계된 내용이다.

•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 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 **경강상인:** 조선 후기 한강변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곡(稅穀)과 양반 지주층 소작료의 임운(賃運)활동에 종사하던 상인.

㉠ 정조의 화성 행차 때에 한강을 건너기 위해 이용한 배다리(주교:舟橋)의 배는 한강을 드나드는 경강선을 활용하였다. 새롭게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곡이나 어물의 운송을 담당하던 배들에게 이권을 주고 행차 때에만 활용하여 비용의 낭비를 막은 것이다.

㉡ 개성의 송상을 설명하고 있다. 송상은 최대의 사상으로서 전국에 지점(송방)이 있었고 대청 무역과 대일 무역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재정 관련 관청(선혜청 등)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26. 조선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성씨의 혼인 관계를 조사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보기 >

ㄱ. 향규	ㄴ. 교지
ㄷ. 보첩	ㄹ. 호구 단자
ㅁ. 호적 대장	ㅂ. 산송 문서

-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ㅁ, ㅂ ⑤ ㄷ,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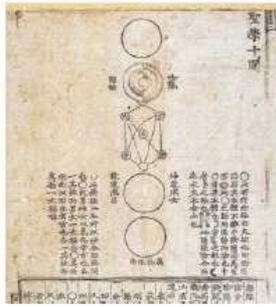
정답: ⑤

* 조선 시대의 혼인 제도

조선 시대 특정 지역의 특정 성씨를 파악하려면 본적 자료를 알아야 하고 이는 호적대장과 3년마다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는 호구 단자가 필요하고, 또한 집안의 내력 기록 사항인 족보를 알아야 할 것이다.

- ㉠ **향규**: 사족들의 총회인 향회의 운영 규칙
- ㉡ **교지**: 조선 시대 임금이 4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사령장(발령.해임에 관한 문서)
- ㉢ **보첩**: 족보(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
- ㉣ **호구 단자**: 조선시대 3년마다 행하는 호구 조사 때 각호의 가장이 지방 수령에게 신고하는 문서
- ㉤ **호적 대장**: 조선시대 각 호주가 제출하는 호적 단자에 의거하여 3년마다 작성하는 호적원부
- ㉥ **산송 문서**: 묘지에 관한 송사 문서

27. 다음 서적을 쓴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였다.
- ② 지행합일과 심학(心學)을 강조하는 학풍을 지지했다.
- ③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 ④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⑤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 조선 중기 성리학자 이황(성학십도)

성학십도: 조선 선조 1년(1568)에 이황이 성학(聖學)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성학과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설(圖說)을 취사하여 채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 이황의 성학십도와 이이의 성학집요의 차이점은 성학십도에서는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한 반면, 성학집요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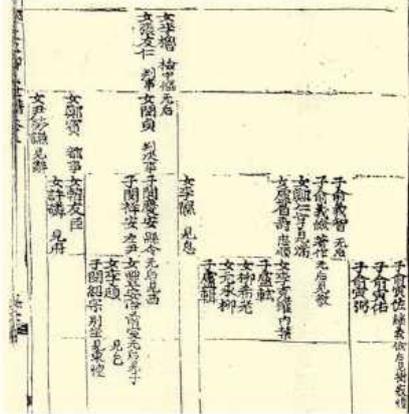
① 이황은 정신.원리적인 개념인 이(理)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다. 반면 이이는 경험.현실적인 기(氣)를 중심으로 이해했다.

②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심즉리.치양지.지행합일 강조)은 종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③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④ 이이는 이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이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8. 다음은 조선 시대에 발간된 족보의 일부이다. 이 족보에서 보이는 당시의 족보 기재 방식과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장남이 제사를 전담하였다.
- ② 딸의 경우에는 딸의 이름 대신 배우자(사위)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 ③ 반드시 아들을 먼저 기재하지 않고, 아들과 딸 중의 출생 순으로 기재하였다.
- ④ 이러한 족보 기재 방식은 아들과 딸의 재산 상속 방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⑤ 아들만이 아니라 딸의 후손도 모두 수록하여, 일종의 만성보(萬姓譜) 성격을 가졌다.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족보와 사회상

•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상기의 '안동 권씨 성화보'이다. 성화보는 1476년 간행된 안동 권씨 족보로 목판으로 찍어낸 3권의 책인데 중간본만 전해진다. 당시 중국 연호인 성화 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성화보라 부르는데 아들은 물론 딸과 그 자녀(외손)들을 모두 실고 있어 아버지 쪽 성씨 자손과 구별하지 않았다.

자녀는 출생순서로 기록하였으며 양자를 들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성화보에 실린 안동 권씨는 380여명으로 다른 성씨도 8000여명 실려 있다(만성보: 萬姓譜).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여(女)자 밑에 바로 서(壻)라 쓰지 않고 여부(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

•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② 사위, 외손 등 이성(異性)도 기재되었고 딸의 경우 출가한 경우 보통 사위 이름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29.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실시된 조선 총독부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일본 내 쌀 소비는 연간 약 6500만 석인데 생산고는 약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제국 만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 장래 쌀의 공급은 계속 부족해질 것이고, 따라서 지금 미곡의 증수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급무라고 믿는다.

〈조선 산미 증식 계획 요강, 1926.〉

- ① 지주와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작농이 늘어났다.
- ② 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였다.
- ③ 쌀 생산량이 늘어 조선 농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 ④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증가하여 목표량에 근접하였다.
- ⑤ 조선의 부족한 식량은 연해주에서 들어오는 잡곡으로 대신하였다.

정답: ④

* 산미증식 계획(1920년대, 쌀 수탈)

제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품종 개량, 수리 시설 구축, 경지 정리, 개간 등을 통해 쌀의 증산을 위해 노력했지만 증산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쌀 반출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국내 식량 사정은 크게 나빠졌다. 일제는 한국 내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조·수수·콩 등의 잡곡을 들여와 보충하였다.

한국 농민들은 고율 소작료뿐 아니라 지세, 공과금,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마저 부담하는 이중적 수탈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토지 회사나 대지주들은 농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더욱 넓혀 갔다. 그 결과 많은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화전민·토막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들도 늘어났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농민들은 조합을 만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소작 쟁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지주층은 쌀 수출로 더 높은 수익을 올렸고,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이익도 증진되었다.

30. 다음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 5 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 ② 토지의 매수 가격은 연평균 생산량의 1.5 배였다.
- ③ 미군정기에 신한 공사에 의해 추진, 완료되었다.
- ④ 농지의 분배는 농가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 ⑤ 지주 계급이 몰락하고 자작농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지개혁(1949년 법 제정, 1950~1957년 실행)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했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은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3정보 이상), 종묘포·상전 등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경작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해당 농지생산물의 150%) 정부가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상 매수).

즉,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농지 주산물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수량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용통식증권'으로 지급하며,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하도록 되었다(유상 분배). 또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등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리한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지주계급의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에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자작 농지 비율 증가) 즉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다.

② 150% 매수이므로 1.5배이다

③ 1946년 미군정기 때에 신한공사를 통한 호당 2정보를 한도 내의 해당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되, 가격은 해당 농지 생산물의 300%를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농지 개혁도 있었으나 해방 이후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일원화 되었다

정답: ③

31. 다음 개혁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실은? [1 점]

- 탐관오리의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정할 것.
- 노비 문서는 태워 버릴 것.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씌우는 평량갓을 벗게 할 것.
- 무명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정할 것.

- ①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 ②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③ 김홍집을 수반으로 한 내각이 설립되었다.
- ④ 군기처를 폐지하고 내아문과 외아문을 설치하였다.
- ⑤ 청이 마젠창과 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폐정 개혁안 12개조)

제시문은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 12개조 중 일부이다. 개혁안은 전주 화약(1894.6.11)이 맺어지면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전라도 53군에 집강소라는 민정기관이 설치되어 폐정 개혁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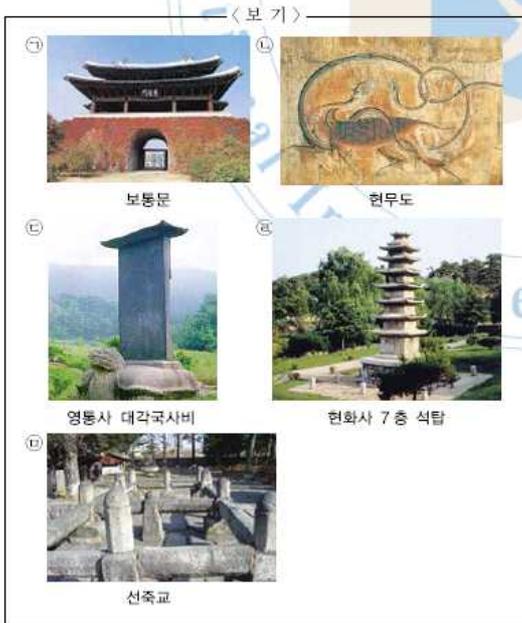
① **교정청**: 1차 동학 농민 봉기에 대한 진압을 실패한 후 전주 화약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개혁 요구와 일제의 내정개혁 강요에 의해, 1894년 6월 11일 개혁 실행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관청. 즉 동학교도들의 폐정 개혁안을 실시케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교정청을 폐지하고 동년 6월 25일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흥선대원군을 수반으로 한 1차 김홍집 내각에 의한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1894.7).

④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1894.12).

⑤ **임오군란(1882)**을 진압한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젠창과 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적극 관여하였다.

32. 다음 신문 기사에서 밑줄 친 문화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평양이 고구려 유적의 보고라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고려 유적의 보고이다. 이제 경의선 시철 운행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개성 관광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머지않아 개성의 문화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 ○○년 ○월 ○일>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⑤

* 개성시(개풍군)의 문화 유적

㉠ **보통문**: 조선 초기에 건축된 개성의 남대문(1393)과 평양의 보통문(1473)은 고려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현무도**: 평안도 강서군 강서대묘 사신도.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 **영통사 대각국사비**: 경기 개풍 소재, 대각국사 의천의 업적을 새긴 비로, 비문은 김부식이 지었고, 글씨는 구양순체의 해서로 오언후가 지었다.

㉣ **현화사 7층 석탑**: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소재. 신라의 예리한 직선미보다는 독특한 둥근 맛이 나는 고려 전기의 탑(1020).

㉤ **선죽교**: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교(石橋). 정몽주가 피살된 곳으로 유명하다

33.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조선, 고구려, 발해 시대의 유적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 ② 최근까지 약 200만에 달하는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 ③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령이 되어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였다.
- ④ 1932년, 푸이를 명목상의 국가 원수로 하는 일본의 괴뢰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 등에 대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답: ③

* 만주 지역의 역사

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모두 한반도 북부 뿐만 아니라 만주에 근거를 영역이었다

③ 지린, 헤이룽, 요녕성의 동북 3성에 우리 조선족들의 다수 거주하며 특히 지린성 연변에는 조선족 자치구가 있다

③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령이 된 곳은 연해주 지역이고 조선과 두만강 하류 지역을 경계로 맞닿게 되었다.

④ 일제는 류조구 사건을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하여(만주 사변: 1931) 청의 마지막 황제인 부의를 내세워 만주국(1932~1945)이라는 일본의 괴뢰 정부를 세웠다.

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의 왕조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이 중국 당국에 의해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34. 다음에서 설명하는 여성 단체는? [2 점]

우리 여성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불리한 지위에서 있어 왔다. …… 조선 여성 운동은 세계 사정 및 조선 사정에 의하여 또 조선 여성의 성숙 정도에 의하여 바야흐로 한 중대한 계급으로 진전하였다.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운동이 전선적 협동 전선으로 조직된다. 여성의 각층에 공동되는 당면의 운동 목표가 발견되고 운동 방침이 결정된다. …… 조선 여성에게 얽혀져 있는 각종의 불합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봉건적 유물과 현대적 모순이니, 이 양 시대적 불합리에 대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조선 여성의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을 리가 없다. 오직 반동층에 속한 여성만이 이 투쟁에 있어서 회피, 낙오할 것이다. ……
(○○일보, 1928. 1. 16.)

- ① 근우회
- ② 조선 여성 동우회
- ③ 대한 애국 부인회
- ④ 조선 여자 교육 협회
- ⑤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YWCA)

정답: ①

* 근우회: 1920년대 신간회의 자매 여성단체로서 좌우합작 성격의 여성 단체

3·1 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항일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여성의 의식이 고양되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 단체로는 여성 계몽 운동을 벌였던 조선 여자 교육회, 사회주의 성향의 조선 여성 동우회가 대표적이었다. 여성 단체들은 신간회의 결성을 계기로 민족 협동 전선체인 근우회를 출범시켰다. 근우회는 기관지 ‘근우’를 발간하고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 농민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① 근우회는 1927년 5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민족적 처지의 탈피와 봉건 유제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야학 설치 등을 통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산되면서 근우회도 해산되고 말았다.

② 조선 여성 동우회는 1924년 5월 7일 창립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 1927년 근우회가 결성됨으로써 해체되었다.

③ 대한애국부인회는 1919년 11월 평양에서 조직된 여성독립운동단체.

④ 조선여자교육협회는 1920년 초반 여성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 전개했다.

⑤ YWCA는 1922년 결성된 여성 기독교 단체임

35. 다음 연설을 했던 사람의 활동과 관계가 깊은 것은? [2 점]

…… 이 입법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도 입법 의원인데도 초보적 과도 입법 의원인 것을 본원의 현재 의원으로서 명화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보적 입법 의원의 사명은 최속(最速)한 기간 내에 남북이 통일한 총선거식으로 피선된 확대된 입법 의원을 산출하는 제1계단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확대 입법 의원은 미·소 공동 위원회의 계속 개회가 되면 더욱 좋거니와, 혹 어떠한 변환으로 급히 속개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기간 내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임시 정부를 산출하여, 안으로는 완전 자주 독립의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우리의 주인인 한국 3천만 민중의 복리를 도모할 것이며, 밖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여 동아 및 전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연합국과 협력, 매진할 것이다.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의장의 개회사, 1946. 12.)

- ① 1946년 6월에 정읍 발언을 통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② 1946년 비상 국민 회의를 조직하여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 ③ 8·15 광복 직후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건국 준비에 힘썼다.
- ④ 민족 자주 연맹을 결성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⑤ 1947년 2월에 미군정의 민정 장관에 임명되어 남조선 과도 정부를 이끌었다.

정답: ④

* 제시문의 연설자는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이다.

김규식(1881~1950. 12): 호는 우사(尤史). 미국에서 공부하여 서양문물에 익숙하였다. 1919년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파리강화회의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으며, 유럽·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의 선봉에 섰다. 만주에서 대한독립군단의 지휘관으로도 활약하였다.

광복 후에는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앞장섰으며, 1946년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정론이 제기되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함께 중도 우익 세력을 이끌고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여 미 군정의 지지를 받아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의 실패 후, 좌우합작에 참여 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점자본주의도 아닌 무산계급독재사회도 아닌 제 3의 길을 채택한 민족자주연맹을 1947년 12월에 결성하고, 1948년 4월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여 김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정계를 떠났고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① 정읍 발언(1946.6): 단정론 주창, 이승만, 한민당 등 우익 지지

② 비상국민회의(1946.2):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신탁통치 반대 연합전선.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좌익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립하였다.

③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8.15~9.8): 중도 좌익 여운형 주도의 건국 준비 단체

⑤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고 안재홍을 미군정 민정장관에, 김규식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에 선출되게 하였다.

36.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사실은? [1 점]

이렇게 하여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 정부의 집세가 30 원, 심부름꾼 월급이 20 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 ……나는 임시 정부 정청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백범 일지〉

- ① 연통제의 실시 ② 구미 위원부 설치
- ③ 한인 애국단 조직 ④ 국민 대표 회의 소집
- ⑤ 육군 주만 참의부 결성

정답: ③

* 한인 애국단의 설립 배경(1931)

제시문은 임시 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소집(1923) 이후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되어 임정을 탈퇴한 뒤, 그 활동이 침체된 시기이다(1920년대 후반).

•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 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통제는 1921년 일제에게 그 조직이 발각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② 임시 정부는 출발할 당시부터 외교를 통한 독립의 성취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에 구미 위원부, 프랑스에 파리 위원부를 두었다.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와 워싱턴 회의, 국제 연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 받으려고 했으나 강대국의 외면 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⑤ 자유시 참변(1921) 이후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 운동을 추진하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 부를 조직하였다. 이 가운데 (육군 주만) 참의부는 임시 정부가 직할하였다.(1924)

37. 다음 선언문의 필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점]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나?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역사를 잊었
느냐?..... 민족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족 속으로
가서 민족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과 암살, 파괴, 폭동
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
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① 한국 독립 운동지혈사, 유교구신론 등을 집필하였다.
- ② 동계사에서 활동하였고, 한국훈이라는 저서를 집필했다.
- ③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으며, 한인 사회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 ④ 독사신문, 조선 상고사 등 역사 관련 논설과 저서를 남겼다.
- ⑤ 의열단의 단장으로서 동척에 폭탄을 던지는 등의 의열 투쟁을 지도했다.

정답: ④

* 신채호(1880~1936)에 대하여

제시문은 1923년 단재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이다. 이는 1922년 김원봉이 북경에 있던 신채호를 방문하여 의열단의 행동 강령 및 투쟁 목표를 문서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신채호는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신채호는 해외에서 독립 운동에 몸바쳐 활동하면서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는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박은식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면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② 신규식은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고, 1915년 박은식과 대동보국단을 조직하였으며 저서로는 <한국훈>, <아목루> 등이 있다.

③ 이동휘는 한인사회당(1918: 후일 고려공산당으로 개편) 창당하였고 1919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참여하였고 이어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군무총장, 국무총리를 지냈다. 공산당으로 전향하여 이승만·안창호 등과 대립했다.

⑤ 김원봉: 의열단(1919), 조선민족혁명당(1935), 조선의용대(1938)를 이끌었으며 임정과 한국광복군에 참여한 무정부주의계열의 민족주의자이다.

38.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2 점]

1897년 2월 25일에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8월에 연호를 광무라 고치고, 10월에 국호를 대한, 왕을 황제라 칭한 후 황제 즉위식을 가졌다. 대한제국 황제가 된 고종은 이용익, 이채연 등을 등용해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가 이 기간에 공포되고, 양치아문에서는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이 밖에, 도로를 정비하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 철도, 운수 분야를 개혁하고, 상업을 진흥시키고자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설치하였다.

〈고종 황제 역사 청문회〉

- ① 광무개혁은 고종이 추진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되고, 서울에는 전차가 개통되었다.
- ③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전제권, 국민의 자유 민권 등을 규정한 헌법이였다.
- ④ 이채연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개조 사업이 추진되어 방사상 도로 체계가 도입되었다.
- ⑤ 이용익은 정부의 국고 구실을 한 대한천일은행의 운영과 중앙 은행 설립 준비에 힘썼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만에 환궁한 후,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1897).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로 하고,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 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분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① 광무개혁은 고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② 경인선 개통(1899)

③ 대한국 국제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사법권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유민권은 오히려 독립협회의 구호이다

④ 이채연(1861~1900): 한성판윤을 연임하면서 최초로 서울의 도시계획을 추진하였고 독립협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⑤ 이용익(1854~1907): 1897년 황실의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에 발탁되면서였다. 이후 감리서북광무 겸 감사철도사를 거쳐 원수부 회계국 전환국장 ·서북철도국 총재 ·중앙은행 총재 등을 겸임하였다. 1902년 탁지부 대신이 되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황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위해 인삼을 황실 전매사업으로 하였고 외국인의 광산채굴을 금지하고 광산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또한 일본 자본을 막고 대한제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정답: ③

* 광무개혁(1897~1910)

39. 다음 자료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점]

일본이 경부, 경의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은 분자 그대로 토지의 약탈 과정이었다. 일본은 그 과정에서 선로 용지와 정거장 용지 및 기타 부속 시설 기지로서 모두 1933만 6488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탈취하였다. 이것을 노선별로 나누어 보면, 경부 철도는 선로 용지 319만 2천여 평, 정거장 용지 127만 3천여 평, 기타 용지 38만 1천여 평이었으며, 경의 철도는 선로 용지 803만 4천여 평, 정거장 용지 479만 1천여 평, 기타 용지 166만 6천여 평이었다. 경부 철도에 비해 경의 철도 용지 폭이 훨씬 더 방대하였던 것은 복선 선로 용지를 확보하였다는 점 외에도, 정거장 1개소의 평균 면적이 경부 철도의 2만 9천여 평에 비해 경의 철도의 경우에는 10만 4천여 평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제 침략과 한국 철도>

< 보기 >

ㄱ. 일제는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한국 침략과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
 ㄴ. 일제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의 모든 용지를 아주 싸게 헐값으로 매수하였다.
 ㄷ. 러·일 전쟁 때, 일제는 경의선 철도를 군용 철도로 부설하면서 대규모의 토지를 탈취하였다.
 ㄹ.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는 일본 국내의 철도와 같이 협궤(3피트 6인치) 방식의 선로로 부설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일본의 철도 부설(러·일 전쟁 전 대륙 침략의 군사적 목적)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우리 나라의 남북을 연결할 철도 부설에 주력하였는데, 결국 서울과 부산(경부선: 1901~1905), 서울과 의주(경의선: 1904~1906),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1899~1900)철도 부설권을 모두 차지하였다.

㉠ 경부선과 경의선은 대륙으로 이어지는 간선 철도이고 일본이 이를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부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 경부철도합동조관에는 철도 용지로 조선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선로 부지, 역사 부지 등은 일단 조선정부가 사들여 제공했다. 즉 헐값 정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강탈했다

㉢ 러·일 전쟁 발발 직후 군사철도라는 이름으로 착공된 경의선의 경우는 일본군이 총칼을 앞세워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강탈하였다.

㉣ 경부, 경의철도는 일본군이 사용할 군용 철도로 건설했으므로 협궤가 아님

40.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왔을 무렵의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2 점]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략도 될 것이다. ……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방책이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서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①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 ② 청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 ③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④ 러시아와 일본은 북위 39 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려 하였다.
- 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거중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답: ③

* 한반도 중립화론

갑신정변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의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거문도 사건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한편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항일 의병은 을미의병과 단발령(1895)이 첫 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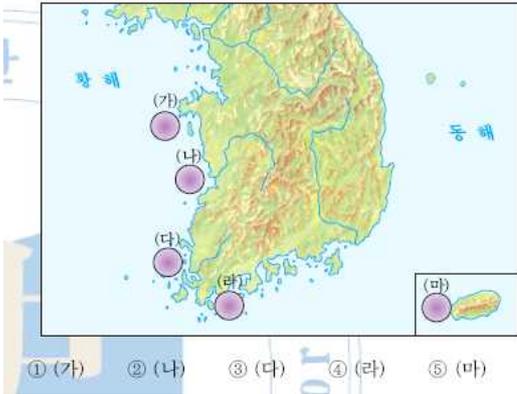
② 청의 내정 간섭은 임오군란(1882) 직후 시작되어 갑신정변(1884)을 거쳐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에 의해 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④ 이는 러·일 전쟁 직전이다(1903)

⑤ 미국은 러·일 간의 갈등 심화 당시에 거중조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오히려 러·일 전쟁 직후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41. 다음 내용과 관련된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면? [1점]

- 이 지역의 발굴은 1975년 앞 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청자 매병 등 6점의 유물이 건져 올려져 시작되었다.
- 문화재 관리국은 1976년 10월부터 1984년 9월까지 모두 10 차례 걸쳐 해군 지원단의 협조로 약 2만 2천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 대다수의 유물은 송대, 원대의 중국 도자기를 비롯한 무역품이었으나, 고려청자와 청동 손가락 등 몇 점의 고려 유물이 나왔고, 일본 유물도 20여 점이 확인되어 당시 동북아 삼국의 교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정답: ③

* 전남 신안 해저 유물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바다에서 발굴·인양된 유물.

1975년 8월, 도덕도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화병 등 6점의 유물이 걸려 인양된 것이 발굴계기가 되었다. 1976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지정되어 10월 16일에 1차 조사작업에 착수했으며, 그후 9년 동안 문화재관리국 주관 아래 11 차례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인양된 유물은 크게 나누어 도자기류 및 기타 유물, 동전, 자단목(紫檀木), 선체 조각 등이다. 이중 도자기류는 출토유물 대다수를 이루는 1만여 점이 룡취안요[龍泉窯]와 그 계통의 생산품이며, 그밖에 덩요[定窯] 계통의 백자와 징더진요[景德鎮窯]의 백자가 있다. 금속제품 729점은 제기류(祭器類)·촛대·동경(銅鏡)·취사용기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약 28t에 달하는 동전은 66건 299종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벼·숯돌·맷돌 등의 석제품이 인양되었다. 한편 목제품으로는 도자기를 담았던 상자와 칠기류 등의 용기가 인양되었으며, 특기할 것으로는 목제상자 안에서 나온 작은 나무토막인 물표(物票) 364점을 들 수 있다.

발굴 결과 해저면하에는 길이 약 20m 너비 6.9m 정도의 목선이 매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선체 내부에 적재된 도자기들은 크기 70×70×50cm 정도의 목제상자에 정연하게 격납되어 있었는데, 10개 또는 20개씩 끈으로 묶여 포장된 점으로 보아 무역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침몰선은 중국목선으로 보이며, 도자기의 양식, 동전의 글자, 칠기의 간지명(干支銘), 목간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할 때 침몰 연대는 1331~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2. 충선왕이 발표한 다음 교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씨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논죄할 것이니, 금후는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들의 자손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 경주 김씨, 경원 이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최씨, ……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여러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 아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딸은 왕실의 비로 삼을 것이다. <고려사>

— < 보기 > —
가. 당시까지 왕실에서는 동성혼이 행해지고 있었다.
나. 혼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주로 무반 가문이었다.
다. 고려 전기 이래의 문벌 귀족 가문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 간섭기 이후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집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르

정답: ②

* 고려 후기 권문세족(원의 간섭기 때의 임금인 충선왕이 힌트)

권문세족(權門勢族) 또는 권문세가(權門勢家)는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일컫는다.

13세기 고려 원 내정 간섭기에 성장한 지배층으로, 몽고 침략에 협력하였거나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측근 세력이나 이전부터 권세를 누려왔던 문무 관리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가문이다.

크게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는 등 몽골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 ㉠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 ㉡ 왕실의 혼인 대상이 되는 것은 권문세족도 문벌귀족처럼 주로 무반 가문이 아니라 문반 가문이었다.
- ㉢ 제시된 자료의 가문은 거의 모두 구(舊) 문벌 귀족이므로 이들이 권문세족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3. (가)~(다)의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계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나)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가)와 (나)의 시기 사이에 남측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재의하고 6·23 평화 통일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남북한 이산 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 ③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남북 정상 회담이 추진되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 ④ (나)와 (다) 시기 사이에 북한의 홍수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남측은 상당량의 쌀을 북측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 ⑤ (나)와 (다) 시기 사이에 금강산 관광의 길이 분단 반세기 만에 열렸다.

정답: ③

*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의 시기 때의 사실

(가) 7.4 남북 공동 성명(1972.7.4):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한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한 회담

(나) 남북 기본 합의서(1991.12):

남북 간의 관계가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과 교류와 협력을 천명한 회담

(다) 6.15 남북 공동 선언(2000.6.15):

남북 정상 간의 회담(6.13)과 함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합의를 봤으며 이전보다 더 교류와 협력에 합의한 회담(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등)

-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9), 6.23 평화 통일 선언(1973.6.23)
- ②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1985)
- ③ 김일성 사망(1994)
- ④ 북측에 쌀 무상 지원(1995)
- ⑤ 금강산 관광(1998.11.18)

44. 다음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임진왜란 때의 무기를 쓰시오. [2점]

- 선조 때 화포장 이장손이 ()을(를) 만들었다.
- 임진년에 왜적이 경주성에 웅거하고 있을 때에 병사 박진이 군사를 거느리고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고 귀환했는데, 이튿날 밤에 ()을(를) 성 밖 2리쯤에서 쏘았다. 적이 처음에 포성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홀연히 큰 숲 같은 물진이 날아와 적장이 있는 객사의 뜰 가운데 떨어지자, 적이 다 모여 불을 켜 들고 서로 밀치고 굴렀다. 조금 있자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 듯 발하여 맞아 죽은 적이 30여 명이고 맞지 않은 자도 모두 놀라서 자빠지고 정신을 잃었다.

〈정비록〉

()

* 임진왜란과 무기의 발달(비격진천뢰)

조선 중기의 과학자 **이장손**은 선조 때에 군기시에 소속된 화포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기(火器)인 비격진천뢰를 제작하여 왜적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히 비격진천뢰의 폭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목공을 발명하여 더욱 효과적인 공격무기로 만들었다.

45. 다음 (가)와 (나)의 ()에 ①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나)와 관련된 ②정치적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2 점]

(가)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지금 예종조의 실록을 상고하니, 기축년 여름 4월 세조대왕실록을 찬수할 때, 민수가 ()에 사신(史臣)의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스스로 두려워하고 꺼려하여, 기사관 강치성에게 부탁하여 그 ()을(를) 몰래 내이다가 글귀를 지우고 고쳐 썼는데, 수찬관 이영은 등이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이를 상고하니, 지우고 고쳐 쓴 것이 모두 여섯 가지 일이었습니다. 영사 한명회 등이 민수의 공사(供辭)를 취하여 아뢰니, 임금이 한명회 등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 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나) 살펴보건대, 사신은 임금의 잘잘못과 신하의 현명함과 사악함, 그리고 시정의 옳고 그름을 모두 기록한다. 그러므로 역대의 임금이나 재상 중에 흉포해서 제멋대로 하는 자일지라도 ()을(를) 가져다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연산군 때에 간흉 유자광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싫어하여 화를 얻어 만들었는데, 김일손, 박은의 부리가 모두 이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다.

〈인조실록〉

- ① ()
② ()

* 조선 왕조 실록의 사초와 무오사화

모범답안: ① 사초, ② 무오사화(사초 문제)

• 여기서 말하는 사초는 좁은 의미의 사초이며 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이 교대로 궁중에 숙직하면서 조정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여 정사의 잘잘못과 국왕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일정한 형식을 따라 기록한 것이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임금이 죽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시정기는 정부 각 기관의 공문서를 사관이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매달 1책 또는 그 이상으로 묶어 춘추관에 보관하였다.

사초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새 국왕이 즉위하여 선왕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춘추관에 모아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실록 초고본들과 함께 물에 풀어 기록을 없애고 종이를 재생하였다(洗草).

• 무오사화(1498, 연산군4년)

① 계기 :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를 김일손이 실록에 작성함

② 가해자 :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 세력

③ 피해자 :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 표일손, 최부 등

④ 결과 :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림들의 기구가 혁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 사림이 대부분 몰락하였다.

46.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관을 50 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3 점]

- 오늘날의 중국은 대지 가운데 한 조각의 땅에 지나지 아니한다. 중화를 귀하게 여기고 오랑캐를 천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 옛날부터 유학자들은 언제나 중화와 이적을 엄격히 구분하였고, 중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오랑캐라 하는데, 이것은 통할 수 없는 이론이다. 하늘이 어찌 지역을 가지고 인간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 무릇 이미 동서남북의 한 가운데 중(中)이 있으니 어디를 가나 중국인데, 어찌 우리 나라를 동국(東國)이라 부르는가? 또, 가는 곳마다 중국인데, 무엇으로써 중국이라 부르는가?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화이론(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

• 실학자들은 서양 지도(곤여만국전도)의 도입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화이론적 세계관(중화 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 높아졌다.

• 조선 후기 천문학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조선 후기에 서양 선교사가 만든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

47. 고려 광종이 밭줄 친 정책을 시행한 목적을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3점]

우리 태조가 창업한 초기에 여러 신하 중, 본래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잡아 노비로 삼기도 하고, 혹은 재물로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신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한 노예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본주인을 모함한 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고려사절요〉

* 고려 초기 광종의 노비안검법(956)

- 호족의 경제·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행하였다.
- 956년(광종 7)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호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종의 비(妃)인 대목왕후(大穆王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종 때 호족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48. 다음은 신간회의 창립 기사 보도와 강령이다. 이를 참고하여 신간회가 결성된 배경과 추구했던 목표를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점]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신간회(1927~1931)에 대하여

1920 중반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운동을 펼쳤다(이광수 ‘민족의 경륜’).

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완전독립론)자들은 조선 민중회(1926)를 중심으로 민족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자들도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한 일제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우회 선언’(1926)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협동체인 신간회가 창립하게 되었으며(1927), 좌우 합작의 민족 운동 단체인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운동을 추진하였다.

49.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정인홍이 실록 편찬자에 의해 비판받았던 이유를 200자 내외로 쓰시오. [4 점]

정인홍은 영남 사람이다. 조식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헛된 이름을 흠쳐 풍현의 장관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이르러 광해가 혼암하여 대임을 담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자못 후회하는 뜻을 두자, 정인홍이 상소하여 극언하다가 유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의가 상당히 그를 허여하였고, 광해는 즉위하는 즉시 소환하여 찬성을 제수하였다.

이언적과 이황은 우리 나라의 대현(大賢)인데도 정인홍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들을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사론(士論)에 죄를 얻고, 이이첨과 깊이 결탁해 서로 추천하여 드디어 정승에 이르고, 이어 원훈(元勳)에 책록되었다. 광해가 생모를 추존하여 종묘에 들였는데, 이는 실로 정인홍이 협찬하여 이룬 것이다. 일찍이 등대(登對)할 때 시문용이라는 사람의 풍수설을 험씨 추천하여 토목 공사를 일으켰다.

계축년에 상차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흉패하여 대군(大君)을 가리켜 '우리 속의 돼지'라고 하였다. 급기야 폐모론이 일어나자 먼저 폐위하고 난 뒤에 주달하자는 의논을 주창하였다. 그리하여 강상(綱常)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의 도리가 막히게 하였으니,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 이이첨에 못지않다.

〈인조실록〉

* 조선 후기 서인의 복인(정인홍) 비판

모범답안: 내용에 의하면 정인홍이 비판받은 이유는 첫째, 스승인 조식의 문무 종사를 추진하면서 이언적과 이황의 학문을 비판하였다는 점, 둘째, 인목대비의 유폐와 영창대군의 살해에 관여하였다는 점, 셋째, 명에 대한 의리를 버리고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넷째,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였다는 점 등이다.

조식(1501~1572): 조선 중기 학자. 이황과 동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성리학자로서 이황과는 달리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여 경(敬)과 아울러 의(義)를 강조하였다.

정인홍, 광재우의 복인으로 대표되는 그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 투철한 선비정신을 보여주며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황의 경상좌도 학맥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두 봉우리를 이루었다(경상우도 학맥)

정인홍(1535~1623): 조선 중기 문신. 선조가 급서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사헌이 되어 대북 정권을 세웠다. 자신의 스승인 남명 조식의 학문을 기반으로 경상우도 사림세력을 형성하였다. 임진왜란 때 제용감정으로 함천에서 의병을 모아 성주에서 왜병을 격퇴하여 영남 의병장의 호를 받았다.

1610년(광해군 2)년 조식이 제외되고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종사(從祀)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유생들에게 탄핵받아 청금록에서 삭제되는 등 각종 싸움으로 분란을 일으켰다. 정인홍은 자신의 스승인 조식에 대한 문묘종사 노력은 남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반대파에 대한 과격한 비판으로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였다.

대사헌에 승진, 중추부 동지사, 공조 참판을 역임했으며 인목대비를 폐위하여 서궁에 유폐시키고 영의정에 올랐다.

1623년 인조반정 뒤 참형되고 가산은 적몰되었으며, 이후 대북은 정계에서 몰락하였다.

50. 다음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5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5점]

- | | |
|-----------|----------|
| ○ 나·당 연합군 | ○ 계백 |
| ○ 복신 | ○ 연개소문 |
| ○ 고연무 | ○ 매소성 전투 |
| ○ 기벌포 전투 | |

* 삼국 통일의 과정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목적으로, 당은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654).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백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하고 사비성을 함락함으로써 백제를 멸망시켰다(660). 이후 복신, 흑치상지, 도침 등이 왕자 풍을 추대하고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어 실패하였다(663).

이어서 나·당 연합군은 연개소문 사(665) 후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된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검모장, 고연무 등이 중심이 되어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669~673)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당의 야심에 맞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신라는 매소성 전투(675)와 기벌포 전투(676)에 승리함으로써 당군을 축출하고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다.